

겨울잠 깬 KLPGA, 2018 골프여왕은 누구?

올해도 정은천하? ‘지현이들’도 만만찮네!

〈이정은6〉

〈김지현·오지현〉

고진영·김해림 美 진출...이정은6 독주 가능 작년 3승 김지현·메이저 우승 오지현 대항마 신인왕 유력후보 최혜진, 개막전부터 이름값 9일 베트남 ‘트윈도브스 대회’ 누가 웃을까



긴 겨울잠은 모두 끝났다. 산뜻한 봄바람과 함께 그린 위 여왕들이

다시 기지개를 편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가 9일 베트남 호치민 트윈도브스 골프클럽(타72·6457야드)에서 펼쳐지는 한국투자증권 챔피언십을 통해 2018년의 문을 활짝 연다. KLPGA는 지난해 12월 베트남에서 효성 챔피언십으로 개막전을 치렀지만, 두 달 넘게 휴식을 취했던 만큼 이번 대회는 KLPGA 2018시즌의 ‘사실상 개막전’으로 불린다.

●‘대세’ 이정은6, 올해도 다관왕 등극?

주목받는 스타는 역시 이정은6(22·대방건설)이다. 지난해 4승을 거머쥐며 연말 시상식에서 6관왕에 올랐던 이정은은 올해 역시 강력한 1인자로 거론되고 있다. 준비도 철저히 했다. 태국에서 두 달 간 머물며 새 시즌 준비에 열을 올렸다. 지난해 스윙과 라듬은 이어간다는 큰 틀 아래 쇼트 게임과 트러블 샷에 많은 신경을 기울였다.

마음가짐 역시 새롭다. 그간 토니모리 모자를 쓰고 그린 위에 올랐던 이정은은 올해부터 대방건설과 새로 손을 잡았다. KLPGA 최고 대우 수준으로 3년간 계약을 맺은 만큼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플레이를 펼칠 수 있다. 여기에 2020도쿄올림픽 출전이라는 목표가 생기면서 동기부여도 더욱 확실한 상태다.

강력한 경쟁자들도 사라졌다. 주요 대회에서

이정은을 위협했던 고진영(23·하이트진로)과 김해림(29·삼천리)이 각각 미국여자프로골프(LPGA)와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로 진출하면서 이정은은 더욱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지난해에 이은 이정은의 독주 지속 여부가 2018시즌 첫 번째 관전 포인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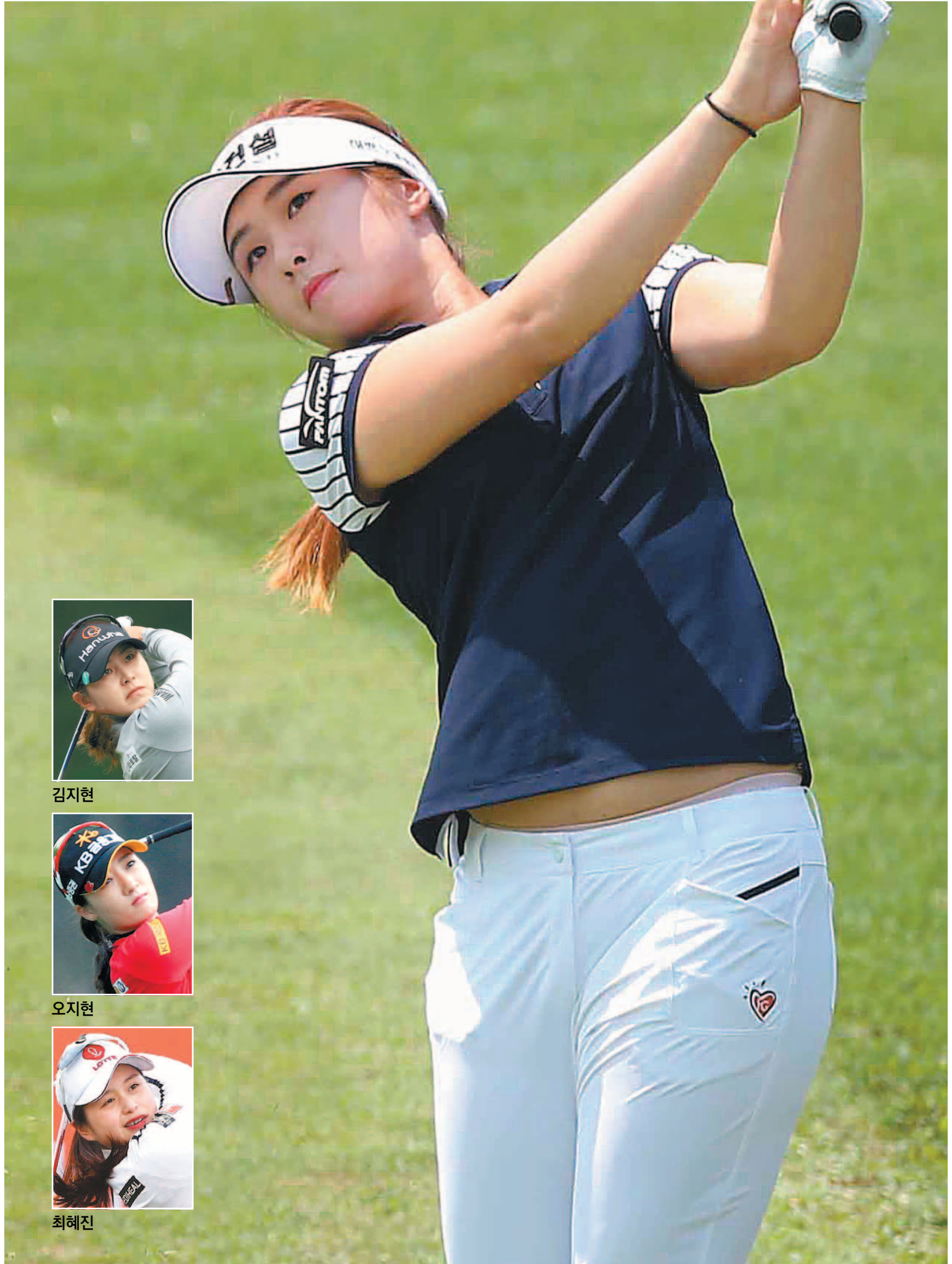
●‘신인’ 최혜진과 ‘지현천하’, 판도 뒤엎을까?

물론 지켜봐야 할 스타는 이정은뿐만이 아니다. 어엿한 성년이 된 최혜진(19·롯데)과 지난 시즌 KLPGA 초반 판도를 점령했던 ‘지현천하’의 주인공들을 역시 비상할 꿈꾸고 있다.

최혜진은 올 시즌 가장 강력한 신인왕 후보로 꼽힌다. 아직까진 뚜렷한 경쟁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다. 지난해 아마추어 신분으로 KLPGA 2승을 거둔 최혜진은 2018시즌 개막전이었던 효성 챔피언십에서 정상을 밟았다. 여기에 고진영의 우승으로 끝났던 지난달 LPGA 투어 ISPS 한다 호주 오픈에서도 준우승을 차지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입지가 더욱 단단해져가는 모습이다. 지난해 부산 학산여고를 졸업하고 고려대 신입생이 된 최혜진은 새내기답게 신인왕을 향한 야망을 숨기지 않고 있다.

김지현(27·한화큐셀)과 오지현(22·KB금융그룹)도 2018시즌을 빛낼 예비후보다. 지난해 생애 첫 우승을 포함해 총 3승을 챙긴 김지현과 감각의 메이저 왕관을 쓴 오지현 모두 기량이 절정에 올랐다는 평가다. 이처럼 경쟁한 국내파들은 물론 박인비(30·KB금융그룹)와 박성현(25·KEB하나은행), 유소연(30·메디힐), 이보미(30·노부타그룹), 신지애(30·스리브드) 등 해외에서 활약할 스타플레이어들도 간간히 국내무대를 찾을 예정이라 2018시즌 KLPGA는 더욱 풍성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김지현



오지현



최혜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가 9일 베트남 호치민 트윈도브스 골프클럽에서 펼쳐지는 한국투자증권 챔피언십을 통해 2018시즌 실질적 개막전을 치른다. 새롭게 대방건설과 손을 잡은 이정은은 올 시즌도 어김없이 강력한 1인자로 꼽힌다.

타이틀리스트 ‘SM7 웨지’ 9일 동시출시

타이틀리스트가 웨지의 명장 밥 보키와 웨지R&D 팀의 경험, 업계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골퍼들의 숏게임에 더 큰 자신감을 선사하는 SM7 웨지를 9일 전 세계에서 동시 출시한다. 새로운 SM7 웨지는 로프트별로 무게중심이 달라 정교한 비거리와 탄도 컨트롤이 가능한 밥 보키 웨지만의 ‘혁신적인 무게 중심 디자인’, 이상적인 볼과 그루브 컨택이 가능하도록 특수하게 설계된 ‘스핀 밀드 그루브’, 그리고 골퍼와 코스 컨디션에 따라 ‘23가지 이상의 퍼포먼스 선택이 가능한 폭넓은 옵션’을 제공한다.

캘러웨이골프, 미셸 위·필 미켈슨 우승 이벤트

캘러웨이골프는 4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HSBC 월드챔피언십에서 미셸 위, 5일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월드골프챔피언십 멕시코 챔피언십에서 필 미켈슨이 나란히 우승한 것을 기

념해 ‘GO ROGUE / PGA, LPGA 투어 동반 우승 드라이버를 맞춰라’ 이벤트를 8일부터 25일까지 캘러웨이골프 공식 홈페이지(www.callawaygolfkorea.co.kr)에서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로그 드라이버(1명), 크롬소프트볼(5명) 등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골프존, G투어 정규투어 1차 대회 개최

골프존은 9일과 10일 대전 골프존 조이마루 전용 경기장에서 ‘2018 JDX 멀티스포츠 GTOUR 정규투어 1차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시즌부터 골프존 ‘투비전(TWOVISION) 시스템’으로 경기를 진행한다. 총상금은 7000만원. 1위는 1500만원, 2위는 700만원, 3위는 4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이번 대회는 예선을 거쳐 결선 1라운드 104명(시드권자 40명·예선통과자 64명), 2라운드 64명(40명 컷오프)이 우승을 다툰다. 대회 코스는 골프존 가상CC인 마스터즈 클럽 포레스트 CC다.

69억→207억...10년새 3배 커진 KLPGA 돈잔치

(2009년 총상금) (2018년 총상금)

KLPGA 2018시즌 규모는?

30개 이상의 투어에도 안정적인 운영 메인스폰서 후원받는 선수 126명 달해 한국선수들 국제무대 활약에 세계 주목

KLPGA 최근 10년 대회·상금 총액		
연도	대회(개)	상금 총액
2009	18	69억3000만원
2010	21	96억4000만원
2011	19	99억8000만원
2012	20	111억6000만원
2013	22	131억5000만원
2014	27	165억6000만원
2015	29	185억4700만원
2016	32	211억원
2017	30	207억원
2018	30	207억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는 지난 10년간 외형적인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뤄냈다. KLPGA 1부 투어 기준으로 2009년에 18개 대회를 개최했고, 시즌 총 상금 규모는 69억 9000만원이었다. 2018시즌은 총 30개 대회, 총 상금 207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한 해 개최되는 대회수는 1.5배 이상 증가했고, 시즌 총 상금 액수는 무려 세 배 가까이 늘어났다.

선수들에 대한 대우도 확실히 달라졌다. 선수들을 후원하는 기업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올해에는 많은 기업들이 직접 골퍼단 운영에도 뛰어들었다. 이렇듯 좋은 여건이 마련되면서 기량이 출중한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돼 국내 여자프로골프의 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안정된 시장을 구축한 KLPGA

KLPGA는 국내 프로스포츠 가운데 프로야구 다음으로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6년부터 매년 30개 이상의 1부 투어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4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대회를 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대회는 해외에서 진행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회 메인 스폰서를 유지하는 작업이 별 탈 없이 진행되면서 일정 규모를 유지해나가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크게 나아진 것은 아니지만 여러 기업들은 국내 여자프로골프대회의 메인 스폰서로 나서는 것에 충분한 매력을 느끼고 있다. 대회를 더 확대할 만큼 기업들이 서로 나서겠다는 분위기는 분명 아니다. 그러나 여자프로골프대회의 스폰서를 제안 받은 다수의 기업들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 스폰서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프로스포츠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줄을 잇는 선수들 후원

선수들의 후원도 마찬가지다. KLPGA에 따르면 메인 스폰서를 확보한 선수와 선수들을 후원하는 기업들의 숫자는 2016년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메인 스폰서의 후원을 받은 선수가 총 126명이었는데 이는 역대 최고치다. 또한 2017년 선수들을 후원한 기업의 수는 총 49개 회사였는데 이 또한 가장 많은 수치로 집계됐다.

올해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

는데 이는 1부 투어에서 활약하는 선수들만이 대상이 아니다. 2부 투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유망주들에 대해 후원을 하는 기업들도 적지 않다. DB손해보험의 경우 최근 선수들의 후원을 결정했는데 1부 투어에서 두각을 나타낸 선수들이 아니었다. 기량이 좋은 어린 선수들을 일찍잡지 후원해서 정상급 선수들로 만들어내면서 스폰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장기적 구상이 깔려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여자프로골프 시장

이러한 현상은 국내에 머물지 않는다. KLPGA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KLPGA 홈페이지 및 모바일 사용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태국, 호주, 캐나다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KLPGA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숫자도 부쩍 늘었다. 한국 선수들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무대에 진출해 매년 두각을 나타내면서 전 세계의 골프 관계자와 팬들이 한국 시장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증명해주는 수치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KLPGA에서 활약했던 많은 선수들이 LGPA 무대를 노크했다. 많은 선수들이 더 큰 시장으로 뛰어들었고, 2009년 이후 지난 9년간 LPGA 투어 신인왕을 차지한 한국선수는 5명이나 배출됐다. 그 뿐 아니라 매년 많은 한국 선수들이 LPGA 대회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있다. 지난해

세계랭킹 10위 이내에 진입한 선수들의 국가를 살펴보면 한국이 가장 많다. 그렇다보니 자연스레 그들이 성장한 무대인 KLPGA에 대한 관심도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내실다지기에 들어가는 KLPGA

KLPGA는 이제 내실다지기에 들어갔다. 국내 여건상 더 많은 대회를 개최하기는 쉽지 않다. 환경적인 요인으로 국내에서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일정이 나오지 않는다. 대회 수준을 더 끌어올리고, 좀 더 성공적으로 대회를 진행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대회를 개최하며 또 다른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부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골프 관계자는 “꾸준하게 좋은 선수들이 육성이 되면서 여자프로골프 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다. 이처럼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들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는 협회 등 행정가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다. 지난해 한 메이저대회를 치르며 규정 적용 때문에 대회 보이콧 얘기까지 나온 적이 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자프로골프에 관련된 모든 구성원들이 더 노력해야만 지금의 위상을 잃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